

KOCHAM

Economic Briefing

Korean Chamber of Commerce
and Industry in USA, Inc

2014년 6월 3일(화)

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- 1) 5월 중 마켓 제조업 PMI 확정치 56.4, 전망상회
- 2) 4월 중 개인소비, 1년 만에 감소
- 3) 4월 중 공장주문 0.7% 증가, 예상치 상회

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- 1) 유로존, 5월 중 물가상승률 0.5%, 예상 하회
- 2) 중국, 5월 중 HSBC제조업 PMI 49.4, 경기 안정 조짐
- 3) 영국, 마약·매춘까지 GDP에 포함

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- 1) 구글, 인공위성 프로젝트 30억달러 투자
- 2) 미국, 자동차 업계 5월 중 판매 호조

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1) 5월 중 마켓 제조업 PMI 확정치 56.4, 전망상회

- 지난 2일 금융정보업체 마킷은 지난 5월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(PMI) 확정치가 56.4를 기록했다고 발표
 - 이는 예비치인 56.2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제조업 경기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남
- 세부적으로 생산지수가 4월 중 58.2에서 59.6으로 개선된 반면, 신규 주문은 58.9에서 58.8로 약간 감소했고, 고용은 53.7로 전월과 동일하게 나타남

2) 4월 중 개인소비, 1년 만에 감소

- 지난 30일 미 상무부는 계절 조정치를 적용한 지난달 개인지출이 전월대비 0.1% 감소했다고 발표, 이는 1년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결과로 시장 전망치인 0.2% 증가보다 낮고, 직전월(3월) 수정치인 0.1% 증가를 하회하는 수준을 기록
- 전문가들은 개인지출 감소에도 경제 성장세가 지난 1/4분기에 나타난 3년만의 위축을 딛고 2/4분기엔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분석
- 한편, 3월 중 개인소비지출은 당초 0.9% 증가에서 1.0% 증가로 상향 조정, 개인지출은 지난 2009년 8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

3) 4월 중 공장주문 0.7% 증가, 예상치 상회

- 지난 3일 미 상무부는 미국의 4월 중 공장주문이 0.7% 증가했다고 발표, 이는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결과

- 미국의 공장주문은 지난 2월 1.7%, 3월 1.5%에 이어 4월까지 증가세를 유지
 - 변동성이 심한 수송 부문을 제외한 공장주문은 0.5% 증가, 내구재 주문은 0.6% 증가, 비내구재 주문은 0.7% 증가
- 한편,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미국의 제조업이 이상한과 등의 영향에서 벗어나 성장세를 회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

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1) 유로존, 5월 중 물가상승률 0.5%, 예상 하회

- 지난 3일 EU 통계당국 유로스타트는 유로존의 5월 중 소비자물가지수(CPI)가 0.5%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
 - 이는 전월의 증가율 0.7%보다 하락한 것으로,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 0.6%도 하회
- 유로존의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9월 1.1%를 기록한 이후 지난달까지 8개월째 0%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
 - 이는 유럽중앙은행 (ECB)의 물가상승률 목표치(2%)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
- 이에 따라 ECB가 곧 추가 부양책을 실시할 것이란 전망도 부상
- 한편, 유로존의 4월 실업률은 11.7%로, 전월 기록과 시장 전망치(각 11.8%)를 소폭 하회하는 수치를 기록 한 바 있음

2) 중국, 5월 중 HSBC제조업 PMI 49.4, 경기 안정 조짐

- 지난 3일 HSBC는 중국의 5월 중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(PMI) 최종치가 49.4로 집계, 이는 4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결과라고 발표
 - 이는 전월 기록인 48.1보다는 증가한 것이지만 시장 전망치(49.7)와 예비치(49.7)는 하회하는 결과
- 금번 결과는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아직 위축세를 기록하고 있으나, 점진적으로 기준선 50에 가까이 근접하고 있음
- 한편, 5월 중 비제조업 PMI는 55.5로 전월대비 0.7p상승, 이는 2개월 연속 개선을 기록

3) 영국, 마약·매춘까지 GDP에 포함

- 지난 29일 FT는 영국이 GDP 계정에 마약과 매춘도 포함키로 했다고 보도
 - 이는 유럽의 새 지침을 따른 것으로 각국의 GDP 산정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
- 영국 통계청(ONS)은 오는 9월부터 이를 GDP 계정에 포함시킬 예정이며, 이에 따라 GDP는 최대 5%인 100억파운드 증가할 전망
- 또한, 영국 외에도 에스토니아, 오스트리아, 슬로베니아, 핀란드, 스웨덴, 노르웨이가 매춘과 마약을 GDP에 포함시키기로 결정
- 한편, EU 통계 가이드라인은 불법 거래라 해도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이를 국민계정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음
- 그러나, 전문가들은 매춘이나 마약 등 불법적인 경제 행위는 규모를 측정하기가 어려워 GDP 통계가 얼마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

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1) 구글, 인공위성 프로젝트 30억달러 투자

- 지난 2일 WSJ는 구글이 오지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인공위성 합대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라고 보도
 - 구글은 이 사업을 위해 적게는 10억달러에서 많게는 30억달러를 예산으로 책정할 계획
- 그러나 WSJ은 이 인공위성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려면 자금 문제와 기술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설명
 - 다른 용도로 운용되는 위성들과 궤도 문제, 과거 인터넷 서비스 확대를 위한 위성사업이 좌초됐던 선례 등 한계가 있기 때문
- 한편, 구글은 지난해 열기구 풍선을 띄워 인터넷 서비스를 하기 위한 ‘룬 프로젝트’에도 착수
 -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와 같은 움직임이 최근 실리콘밸리에 불고 있는 인터넷 보급 확대 움직임과 관련된다고 분석

2) 미국, 자동차 업계 5월 중 판매 호조

- 지난 3일 GM은 5월 자동차 판매대수가 12.6% 증가한 28만 4694대를 기록했다고 발표
 - 이는 시장 전망치 6.4% 증가를 상회하는 결과로, 지난 2008년 8월 이후 6년 만의 최고치이며 5월 실적 가운데서는 7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

- 포드도 시장에서는 0.2% 감소를 예상한 것에 반해 경량 자동차 판매량은 3.0% 증가한 25만 3346대로 집계
 - 크라이슬러는 17% 증가한 19만 4421대를 판매, 시장 전망치 14% 증가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
 - 토요타도 17% 증가한 24만 3236대를 판매, 닛산은 19% 증가한 13만 5934대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
- o 한편, 전문가들은 GM과 포드, 크라이슬러가 모두 픽업트럭이나 SUV, 지프와 같은 브랜드에서 판매 호조를 보였다는 점을 지적, 이는 주택시장이 회복되는 등 시장 여건이 개선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한 바 있음